

# 국어 ‘연결어미 + 하다’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성 연구\*

목 지 선(경상대)

## < 목 차 >

1. 서론
2. 논의 대상의 한정
3. ‘연결어미 + 하다’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성
  - 3.1. ‘-고 하다’, ‘-든지 하다’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성
  - 3.2. ‘-게 하다’, ‘-도록 하다’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성
  - 3.3. ‘-으려고 하다’, ‘-으면 하다’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성
4. 결론

## 국문초록

동일형태의 어미가 연결어미로도 쓰이고, ‘하다’와 결합해 ‘어미+ 하다’ 구성을 이룰 뿐 아니라 종결어미로도 쓰인다는 것은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연구에서 ‘연결어미 + 하다’의 특징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이 글에서는 이들 구성으로 두루 쓰이는 연결어미를 대상으로 ‘어미 + 하다’의 특성을 고찰했다.

‘-고/-든지 하다’는 표면적으로 나타난 명제의 나열을 중지하는 동시에 나열될 수 있는 명제가 더 있음을 함의하므로 의미적·경계적인 면을 모두 충족시킨다. 그리고 명령·청유 등에서 청·화자의 부담을 덜어 원하는 바를 부

\* 이 논문 또는 저서는 2016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5A07917792).

드럽게 제시·수용할 수 있게 하며 단정적 표현의 회피라는 화용적 기능으로 확대된다. 또 ‘-게/-도록 하다’는 ‘하다’로 목적의 실현이나 달성을 나타내는데 이는 ‘하다’의 능동성, 행위성이 화자의 의도나 목적을 이행·완료한다는 의미로 추상화되어 바람과 의도의 의미가 더 강화된 것이다. 그리고 타인에게 자신의 바람과 기대를 투영하는 의미로 발전하면서 사동이 되었다고 보았다. 그리고 ‘-으려고/-으면 하다’는 연결어미에서 더 주관적·양태적인 의미로 확대되어 의도나 계획, 바람이나 희망을 나타낸다. 이때 ‘하다’는 ‘생각하다, 계획하다’나 ‘좋겠다, 행복하겠다’와 대치되나 생략이 가능하므로 대동사가 아니며 문법적·의미적 기능을 한다고 보기도 힘들다.

핵심어 : 연결어미, ‘연결어미 + 하다’, 종결어미,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양태적 의미

## 1. 서론

연결어미는 두 명제를 일정 의미로 이어주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 의미·통사적 특성은 선후행절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런데 실제 언어생활에서 연결어미가 어휘적 의미를 상실한 ‘하다’와 결합하거나 심지어 어떤 후행요소도 없이 종결어미 자리에 쓰이는 경우가 빈번하다. 이는 연결어미 형태가 더 이상 선후행절의 관계의미를 나타내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러한 기능 변화는 의미·통사상의 변화와 맞닿아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후행 요소의 유무나 종류에 따라 연결어미의 통사·의미적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 이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종결어미화 현상은 물론이고 어말어미의 특성을 밝히는 데도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전 연구들을 살펴보면 동일 형태의 어말어미가 연결어미로 기능할 때와 종결어미

로 기능할 때의 의미·화용적 차이에는 많은 관심을 가져온 반면 ‘연결어미<sup>2)</sup> + 하다’ 구성과의 비교 연구에는 별다른 관심을 갖지 않았다<sup>3)</sup>.

종결어미화 된 연결어미들의 대표적 특성 중 하나가 ‘연결어미 + 하다’ 구성으로도 활발한 쓰임을 보인다는 점에서도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연구에 있어 ‘연결어미 + 하다’ 구성의 특성을 살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종결어미화된 연결어미들이 연결어미에서 ‘연결어미 + 하다’ 구성으로, 이것이 또 종결어미로 점진적 변화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연결어미가 ‘연결어미 + 하다’ 구성과 종결어미 각각으로 기능 변화를 겪었는지에 대한 고찰도 필요해 보인다. 이 글에서는 연결어미, 종결어미, ‘어미 + 하다’ 구성으로 두루 쓰이는 어미를 대상으로 이들이 ‘어미 + 하다’ 구성으로 쓰일 때의 특성을 고찰할 것이다. 이들을 연결어미일 때의 의미 범주에 따라 유형화한 뒤 실제적인 쓰임을 바탕으로<sup>4)</sup> 통사·의미적 특성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2) 일반적으로 연결어미는 선행행 명제를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를 말한다. 그런데 이 경우에 쓰이는 연결어미 형태는 명제 연결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연결어미라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후행절 대신 ‘하다’와 선행명제를 이어주는 기능을 하는 어미에 대한 적절한 용어를 찾기 어려워 그대로 ‘연결어미’로 쓴다.

3) ‘연결어미 + 하다’에 대한 연구로는 서정수(1975), 권재일(1988), 최재희(1996), 최웅환(1998), 한명주(2014) 등이 있는데 보통은 전체를 대상으로 연결어미에 후행하는 ‘하다’의 정체를 살피거나 그 구성이 통사적인지 형태적인지를 밝히고자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서정수(1975)는 ‘하다’를 ‘대동사’로 보고 ‘연결어미 + 하다’의 의미는 구문론적 문맥에서 예견되는 것으로 파악했다. 권재일(1988)은 ‘연결어미+하다’ 구성은 동사구 내포문 구조에 해당하며, 특별한 형태론적 구성으로 보았다. 최재희(1996)도 이런 구성을 내포화 구문으로 보고 의존동사는 상위문의 동사로서 하위문 명제에 대해 양상(mood) 표시 기능을 한다고 보았다. 최웅환(1998)은 연결어미 뒤의 ‘하다’를 서술어의 확장어로 보고 단문으로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한명주(2014)는 ‘-(으)면 하다, -(으)려고 하다, -어야 하다, -고자 하다, -게 하다, -도록 하다’를 통사적 특성 및 선어말어미와의 상관관계를 토대로 하나의 구성으로 보아야 함을 주장하였다.

4) 실제 언어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국립국어원 언어정보나눔터(<https://ithub.korean.go.kr/user/login.do>)의 말뭉치자료를 주로 활용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사전 상의 예문, 인터넷 검색자료를 활용하였다. 통사적 특징 추출을 위해 변형된 문장은 국어학 전공자(박사수로 이상) 3인 이상이 문법성을 판단

이들의 특성을 비교·대조해 보면 연결어미 뒤에 오는 ‘하다’의 기능뿐 아니라 공식적으로나마 연결어미와 ‘연결어미 + 하다’ 구성, 그리고 종결어미의 기능변화 과정 및 이들의 상관관계를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 2. 논의 대상의 한정

연결어미에서 문법화 과정을 거쳐 종결어미화 되었다고 볼 수 있는 어미로 ‘-고, -거든, -게, -는데, -으려고, -도록, -든지, -으면’을 들 수 있다. 이 8개의 어미 중 양태소와 결합해 굳어진 형태인 ‘-거든’과 ‘-는데’를 제외한 6개의 어미 ‘-고, -게, -으려고, -도록, -든지, -으면’은 예(1ㄱ~ㄷ)에서와 같이 연결어미나 종결어미 외에도 ‘어미 + 하다’의 형태로도 활발하게 쓰인다<sup>5)</sup>.

- (1) ㄱ. 네가 집에 오지도 않고 하니까 궁금해서 전화한 거지.
- 나. 일단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아침 신고를 하든지 합시다.
- ㄷ. 몇 년 전 한국의 한 대기업이 미국에 있는 꽤 유명한 전기 광고판 회사와 계약을 맺으려고 했다.
- ㄴ. 약간 좀 이상한 감이 있긴 하지만 그냥 이해하고 님, 넘어가도록 하 겠습니다.
- ㄹ. 그들이 그를 지내발 같이 스멀거리는 어둠 속으로 몰입하게 하고 있었다.
- ㅁ. 요 부분에 대해 좀 지적을 좀 해 주시고 제안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 마지막 장을 집어넣었습니다.

---

했다.

- 5) 목지선(2015)에서는 의미·통사적 기준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모두 8개의 어미를 연결어미에서 종결어미화된 것으로 보았다.

위에 제시한 ‘어미 + 하다’ 구성은 사용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이들이 연결어미로 쓰일 때는 ‘나열, 의도, 조직, 목적, 조건’ 등의 의미기능을 하는 반면 ‘하다’ 구성으로 쓰일 때는 담화적 기능이나, 문법적 기능이라 할 수 있는 사동, 양태적 의미인 바람 등을 나타내므로 이들의 차이를 구성요소의 특성만으로 설명하기도 어렵다. 연결어미는 선행행절의 관계의미를 나타내기 때문에 후행절이 아닌 ‘하다’와 결합한 경우는 의미기능의 변화가 일어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데 이런 차이에도 불구하고 사전에서는 연결어미로서의 기능 중 하나로 ‘어미 + 하다’ 구성의 용법을 제시하는 경우가 많다. 사전의 특성상 ‘어미 + 하다’ 구성의 의미를 따로 떼어서 제시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간혹 연결어미의 용법을 설명하는 가운데 부가적으로 ‘어미 + 하다’ 구성을 언급한 경우도 있으나 연결어미의 의미로만 설명을 해놓았기 때문에 이들 구성과 연결어미 사이의 차이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기 어렵다.

우선 사전<sup>6)</sup>에 나타난 연결어미의 용례 중 ‘하다’와 결합에 대해 언급한 부분만을 따로 제시해 보면 아래와 같다.

<‘어미 + 하다’ 구성에 대한 사전 기술>

- 1) ‘-고’4. 서로 뜻이 대립되는 말을 벌여 놓는 연결 어미. ‘하다1’의 선행형식이 되게 하거나 명사적으로 쓰이도록 한다.<표준>
- 2) ‘-든지’ 1.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 어미. ‘-든지 -든지’ 구성으로 쓰일 때는 흔히 뒤에 ‘하다1’가 온다.<표준>
- 3) ‘-으려고’. 주로 ‘하다’와 함께 쓰여, 어떤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조직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sup>7)</sup>.<고려>

6) 이 글에서는 <표준국어대사전>의 뜻풀이를 중심으로 하되 용례를 찾기 어렵거나 부족한 경우는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을 참조하였다(<https://ko.dict.naver.com/#/entry/koko/043588a0af394b8690e881607848f43c>). <표준국어대사전>은 <표준>으로, <고려대한국어대사전>은 <고려>로 표시했다. 그리고 의미 설명 외에 결합 제약이나 결합 환경을 제시한 부분은 임의적으로 생략했다.

- 4) ‘-게’ 1. 그것을 본용언으로 하여 주로 ‘하다’나 ‘되다’와 같은 보조용언과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말. <표준>
- 5) ‘-도록’ 1. 주로 ‘하다’나 ‘만들다’와 함께 쓰여,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할 것을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말. ‘하다’가 생략되어 종결 어미처럼 쓰이기도 한다. <고려>
- 6) ‘-으면’ 2. 주로 ‘하다’, ‘좋다’, ‘싫다’의 앞에 쓰여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내는 말.<sup>8)</sup> <고려>

이처럼 사전 상에 제시된 연결어미 용법으로는 ‘어미 + 하다’ 구성의 의미나 특성을 제대로 드러낼 수가 없다. 사전에서는 연결어미와 ‘어미 + 하다’ 구성의 용례를 구분하지 않고 연결어미라는 범주 안에 제시하고 있다. 하나의 의미 기능으로 설명하면서 예시문으로 후행절과 결합한 예와 ‘하다’와 결합한 예를 섞어서 제시해 놓기도 한다.<sup>9)</sup> 그러나 이들은 통사적 특성이나 의미 등 여러 면에서 차이를 보이므로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사전상의 문제점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나 ‘-든지’의 경우, ‘하다’가 결합하는 구성에 대한 언급이 있긴 하나

- 
- 7) <표준>에서는 ‘하다’와 결합에 대해 따로 설명한 부분은 없고 ‘조짐’의 예시문 중 ‘-으려고 하다’ 형을 예로 들어놓았다.
  - 8) <표준>의 경우 희망·바람의 용법에 대해 ‘현실과 다른 사실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현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하거나 그렇지 않음을 애석해하는 뜻을 나타낸다’고 했으나 ‘하다’와 결합에 대한 언급이나 ‘하다’와 결합된 예시문 제시는 없다.
  - 9) ‘-든지’의 경우 <표준>에서는 “나열된 동작이나 상태, 대상들 중에서 어느 것이 든 선택될 수 있음을 나타내는 연결어미. ‘-든지 -든지’ 구성으로 쓰일 때는 흔히 뒤에 ‘하다’가 온다” 로 설명하면서 아래의 예를 둘 들고 있다.

예) ㄱ. 집에 가든지 학교에 가든지 해라.

ㄴ. 계속 가든지 여기서 있다가 굶어 죽든지 네가 결정해라.

그러나 ㄱ의 경우는 ‘-든지’절에, ㄴ의 경우는 후행절에 의미적 초점이 놓이므로 어미 ‘-든지’가 동일한 대상이라 볼 수 없다. 그리고 ‘-게’도 ‘앞의 내용이 뒤에서 가리키는 사태의 목적이나 결과, 방식, 정도 따위가 됨을 나타내는 연결어미.’로 제시하면서 후행절과 ‘하다’가 결합한 예를 구별하지 않고 제시했다.

나열의 의미로만 제시하고 있다. 나열의 기능은 반복 구성에 해당하는 것이고 예시문 또한 반복구성만을 다루고 있으므로 위의 예 (1ㄱ, 1ㄴ)에서처럼 단일구성 뒤에 ‘하다’가 결합한 구성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될 수는 없다.

‘-으려고 하다’의 경우 <표준>에서는 ‘하다’와 결합에 대한 설명은 없고, 조짐의 의미로 제시한 예시문으로 ‘하다’와 결합된 형태가 드러난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의도나 계획, 조짐의 두 가지 의미 기능을 수행함에도 불구하고 조짐의 의미만 제시할 뿐 (1ㄷ)과 같은 계획이나 의도의 의미에 대한 설명은 없다.

그리고 ‘-게 하다’의 경우 ‘-게’는 보조적 연결어미로 제시하나 의미에 대한 언급은 없었으며, ‘-도록 하다’는 ‘하다, 만들다’와 결합해 명령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이것이 연결어미로의 기능이라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뿐만 아니라 (1ㄹ)처럼 1인칭 주어와 결합해 자신의 의지나 약속 등을 나타내는 용법에 대한 언급은 없다.

마지막으로 희망이나 바람의 ‘-으면 하다’를 보면 <표준>에서는 ‘-으면’과 ‘하다’와의 결합이 빈번한 것에 대한 언급은 없고, ‘현실과 다른 사실을 가정하여 나타내는 연결 어미. 현실이 그렇게 되기를 희망한다’는 뜻풀이를 제시했다. 즉 희망이나 바람이 연결어미 ‘-으면’의 의미로 제시되어 있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주로 ‘하다’, ‘좋다’, ‘싫다’의 앞에 쓰여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낸다고 되어 있는데 과연 ‘-으면’ 자체에 희망이나 바람의 의미가 들어있는지는 의문스럽다.

앞서 언급한 바대로 이 연구에서는 ‘어미 + 하다’의 형태로 쓰이는 연결어미는 종결어미화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이들이 연결어미에서 ‘연결어미 + 하다’ 구성으로, 또 여기에서 종결어미로 변화를 겪었다고 선불리 판단할 수는 없다. 그러나 ‘하다’와 결합해서 자주 쓰이는 연결어미가 종결어미로 쉽게 쓰일 수 있다는 것은 부정하기 어렵다. 그리고 종결어미화 된 연결어미 중 ‘-는데’와 ‘-거든’을 제외한 ‘-고, -게, -으려고, -도록, -으면, -든지’가 모두 후행절 대신 ‘하다’ 등과 결합하여 고빈도로 활발하게 쓰이고 있다는 점 또한 이러한 가능성을 뒷받침해 준다.

그리고 ‘하다’가 어휘적 의미가 없고, 연결어미가 선행행절의 관계의미를 내지 않으므로 이때의 ‘하다’는 통사적 기능을 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연결어미 뒤에 다른 명제가 연결되지 않고 연결어미절의 의미로 발화가 마무리됨을 나타내는 기능, 서법이나 선어말어미, 상대 시제 등 문법요소들을 다양하게 나타내기 위한 장치로서의 기능, 연결어미와 결합하여 사동 등 문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 등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동일한 형태의 ‘하다’라 해도 선행 어미에 따라 그 의미와 기능에는 차이가 있어 보인다. 종결어미로 쓰이는 연결어미 중 ‘하다’와 결합할 수 있는 6개의 어미 ‘-고, -게, -으려고, -도록, -든지, -으면’의 의미 기능은 크게 ‘나열(행위, 선택), 목적, 조건’으로 나누어진다. 인과나 양보, 순차 등의 의미를 가지는 연결어미들은 종결어미화 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하다’와도 결합해서 쓰이지 않는다<sup>10)</sup>. 이렇듯 특정 의미 기능을 하는 연결어미 뒤에만 ‘하다’가 결합될 수 있다는 점으로 볼 때 ‘하다’가 선행하는 어미의 의미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며, 선행 어미의 의미 범주에 따라 기능에도 차이가 있을 거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리고 의미 기능의 차이는 통사적 차이와도 맥을 같이 하기 때문에 서법, 시제 등에서도 차이가 있을 것이라 보인다.

일례로 의도나 조건 등 화자의 인식에 가까운 의미를 나타내는 ‘-으려고, -으면’에 후행하는 ‘하다’는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청유나 명령, 약속이나 제안 등의 서법과는 결합해 쓰일 수가 없다. 즉 청자에게 행위를 요구하거나 청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행위를 나타내는 서법으로는 쓰일 수 없는 것이다. 이는 ‘-으면’이 연결어미로 쓰일 때 후행절 서법에 제약이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반면 목적이나 선택, 행위 나열 등 행위와 관련된 ‘-고, -게, -도록, -든지’는 청자의 행위나 청자와의 관계를 염두에 둔 명령, 청유, 제안, 약속 등의 서법과도 자연스럽게 쓰인다.<sup>11)</sup>

10) 필수 조건을 나타내는 ‘-어야’와 목적이나 의도를 나타내는 ‘-고자’도 ‘하다’와 결합해 쓰이지만 이들은 종결어미로는 쓰이지 않기 때문에 이 글의 논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글에서는 ‘연결어미 + 하다’ 구성으로 쓰일 때 ‘하다’가 수행하는 기능을 기준으로 ‘-고/-든지 하다’ 구성, ‘-게/-도록 하다’ 구성, ‘-으려고/-으면 하다’ 구성 등 셋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폈다. ‘-고, -든지’, ‘-게, -도록’은 연결어미로 쓰일 때 공통적으로 나열, 목적이나 결과를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는 점에서, ‘-으려고, -으면’은 화자의 주관적 양태의 의미가 드러난다는 점에서 연결어미의 쓰임에 있어서도 유사한 특성을 보인다.

### 3. ‘연결어미 + 하다’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성

#### 3.1. ‘-고 하다’, ‘-든지 하다’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성

‘-고 하다’와 ‘-든지 하다’는 중첩구성과 단일구성으로 나누어진다. 중첩구성은 명제를 나열하므로 대등적 연결어미 기능과 유사하고, 나머지 ‘-게/도록/으려고/으면 + 하다’ 구성이 단일구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글에서는 ‘-고’와 ‘-든지’ 단일구성 뒤에 ‘하다’가 결합한 것만 대상으로 한정해<sup>12)</sup> 논의를 진행한다. 그런데 이들의 기능이 중첩구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목지선(2018)의 논의를 바탕으로 중첩구성의 특성에 대해 간단하게 살핀 후 이를 바탕으로 단일구성의 특성을 제시할 것이다.

대등적 연결어미나 ‘어미 + 하다’가 중첩구성일 때 모두 명제 나열기능을 한다. ‘-고’는 대등나열을, ‘-든지’는 선택 가능항의 나열을 기능을 하기 때문에 나열 대상에 제한이 없으므로 화자의 의도에 따라 무수한 명제들이 나열

11) 이러한 ‘어미+ 하다’의 서법 차이는 종결어미로 쓰일 때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으면’은 평서형, ‘-으려고’의 경우 평서형이나 의문형에 국한되어 쓰이는 반면 ‘-고, -게, -도록, -든지’는 명령형이나 약한 명령인 제안의 용법에 국한되어 쓰인다.

12) 목지선(2018)에서는 범용어미의 특징을 논의하면서 중첩구성을 대상으로 삼아 ‘-고 하다’와 ‘-든지 하다’의 기능과 의미를 제시한 바 있다. 이 글에서는 중첩구성 외에 단일 구성에 초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한다.

될 수 있다.

‘-고 하’의 경우 대등 나열의 기능을 하는 ‘-고’는 ‘-고1 + -고2 + -고3.....-고n’으로 이어진다. 화자가 의미 강조나 구체화를 위해 많은 명제를 나열할수록 그 의미는 풍성해지고 강화될 수 있다. 그러나 같은 화제묶임에 속하는 명제들이 너무 많이 나열되는 것도 언어의 경제적 측면에서는 문제가 있다. 이때 ‘-고’로 연결되는 명제 뒤에 ‘하다’를 결합시키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명제의 나열을 중지하는 동시에 나열될 수 있는 명제가 더 있음을 함의하게 되므로 의미적인 면과 언어 경제적인 면을 동시에 충족할 수 있다.

(2) ㄱ. 만나면 밥 먹고, 영화 보고, 차 마시고, 쇼핑 하고, 수다 떨고, 공연 보고... 책 읽는다.

ㄴ. 만나면 밥 먹고 영화 보는데.

ㄴ'. 만나면 밥 먹고 영화 보고 하는데.

위의 (2ㄱ)은 ‘만나서 하는 것’이란 화제묶임이 가능한 명제들을 나열하고 있어 내용은 풍성하나 언어의 경제성이 매우 낮게 느껴진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결어미 ‘-고’ 대신 종결어미가 쓰인 (2ㄴ)은 만나서 하는 일이 제시된 ‘밥 먹는 것’과 ‘영화 보는 것’만으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고’ 중첩구성 뒤에 ‘하다’가 결합한 (2ㄴ')는 언어 표현상 매우 경제적이면서도 같은 화제로 나열될 수 있는 명제가 더 있음을 드러냄으로써 (2ㄴ)에 비해 내용이 풍성하게 느껴진다. ‘-든지’의 경우도 이와 마찬가지로 양상을 보인다.

그러므로 ‘-고’나 ‘-든지’ 뒤에 오는 ‘하다’는 제시될 가능성이 있는 명제들을 모두 포괄해 ‘기타 등등’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하다’가 포괄동사의 기능을 하므로 앞서 나열되는 명제가 둘 이상일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거나 제시할 만한 다른 명제가 있기는 하나 발화 당시에 딱히 떠오르지 않는 경우에 ‘-고’나 ‘-든지’ 단일구성 뒤에 ‘하다’가 결합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3)에서처럼 중첩구성을 단일구성으로 바꾸어 제시해도 화자의 의도를 나타내는 데는 별다른 차이가 없다.

(3) ㄱ. 사는 게 재미도 없고, 돈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해서 요즘 우울하지  
뭐

ㄱ'. 사는 게 재미도 없고 해서 요즘 우울하지 뭐

ㄴ. 짐을 맡기고는 부도가 나든지 이민을 가든지 해서 아예 찾아가지 않  
는 사람들이 있다.

ㄴ' 짐을 맡기고는 부도가 나든지 해서 아예 찾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목지선(2018)에서는 ‘-고’와 ‘-든지’ 중첩 구성의 기능을 살피면서 이들이 나열대상의 개방성이 있기 때문에 전달 내용을 보다 풍성하고 다양하게 보이도록 하는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그런데 단일 구성의 경우도 다른 명제가 더 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으므로 유사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4ㄱ, ㄴ)에서처럼 명령이나 청유, 계획, 약속 등을 나타낼 때 하나의 명제만 제시하면 부담스러운 느낌이 들기 마련이다. 그러나 (4ㄱ', 4ㄴ')처럼 ‘-고 하다’, ‘-든지 하다’ 구성을 통해 청자가 선택할 수 있는 명제가 제시된 것 외에도 더 있음을 우회적으로 드러내면 청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화자의 입장에서 보다 부드럽게 원하는 바를 제시할 수 있다. 화자의 입장에서 제안이나 계획, 약속 등을 할 때도 하나의 명제만 제시하면 그만큼 심리적 부담이 큰데 ‘하다’ 구성을 쓰면 그런 부담이 줄어든다.

(4) ㄱ. 그간은 정도 없었지만 이제라도 형이랑 만나면서 살자.

ㄱ'. 그간은 정도 없었지만 이제라도 형이랑 만나고 하면서 살자.

ㄴ. 정말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가버려야지, 더 이상 살다가는 머리가 돌아  
아버릴 것 같아

ㄴ'. 정말 내가 당장 내일이라도 가버리든지 해야지, 더 이상 살다가는  
머리가 돌아버릴 것 같아.

그런데 중첩구성과의 관련성으로 나열 가능 명제가 더 있음을 나타내는 ‘-고 하다’, ‘-든지 하다’의 기능이 확대되어 강조나 단정적 표현의 회피라는 화용적 기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중첩구성 ‘-든지’는 주체나 청자가 선

택 가능한 명제들을 나열하는데 여기에 ‘하다’가 결합하면 제시된 것 외에 선택 가능항이 더 있음을 나타내게 된다. 그런데 이때도 ‘하다’가 그런 선택 가능항을 포괄적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하기 때문에 선행항이 둘 이상일 필요가 없으므로 단일항으로 제시된다. 이때 단일항 뒤에 ‘하다’가 결합해 약속이나 제안의 의미 기능으로 쓰일 때는 다른 선택 가능성이 있으므로 그 선택이 명확하지 않다는 의미로 확대되는 것 같다.

(5) ㄱ. 나머지는 토요일 날 와서 할게.

ㄱ'. 나머지는 토요일날 와서 하든지 할게.

ㄴ. 상처 부위를 도려낸다는 것은 응급 처치에 불과하다.

ㄴ'. 상처 부위를 도려낸다든지 하는 것은 응급 처치에 불과하다.

ㄷ. \* 장계를 올려 하명을 기다린 후에 죽이든지 말아야 할 것인데.

ㄷ'. 장계를 올려 하명을 기다린 후에 죽이든지 말든지 해야 할 것인데.

(5ㄱ)은 하나의 행위가 뚜렷하게 제시되는 반면 (5ㄱ')은 다른 명제의 선택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5ㄱ)은 상대방에게 어떤 행위를 하겠다는 약속이 분명하나 (5ㄱ')는 그 선택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미로 확대된 듯하다. 그리고 (5ㄴ)는 화자가 말하는 ‘응급 처치’가 바로 ‘상처 부위를 도려내는 것’임이 명백히 드러나나 (5ㄴ')은 ‘응급처치’의 대표적인 예로 ‘상처 부위를 도려내는 것’을 든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상반된 명제를 선택 가능항으로 제시하는 ‘-말든지 하다’가 쓰일 수 있는 것으로 보아 선택의 무의미함을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5ㄷ)처럼 단일구성에서 둘 중 하나를 선택한다는 의미로는 쓰일 수 없고, (5ㄷ')처럼 중첩구성에서 어떤 선택이든 상관없다는 의미를 가질 때만 쓰인다.

‘-고 하-’와 ‘-든지 하-’는 생략되어도 의미·통사적 차이가 없다. 이는 이들이 실질적인 의미 기능이 아니라 담화적인 기능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정 의미기능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삽입해 문장을 구성하는 이유는 ‘-든지’나 ‘-고’가 가진 나열의 의미를 이용해 제시된 명제 외에도 나

열릴 수 있는 명제가 더 있음을 드러내기 위함일 것이다.

그리고 나열 대상의 개방성을 드러내는 ‘-고’나 ‘-든지’ 뒤에 종결어미나, 다른 명제를 일정 의미 관계로 이어주는 연결어미를 결합시키기 위해서는 그러한 문법소와 결합이 가능한 동사가 와야 한다. 이때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것이 어휘적 의미는 없으나 문법 형태소와 결합이 가능한 ‘하다’로 보인다. 즉 이들 어미 뒤에 ‘하다’가 결합됨으로써 ‘하다’ 뒤에 종결어미가 자연스럽게 이어져 나열로 문장을 마무리 짓거나 연결어미가 결합되어 다른 성격의 명제와 자연스럽게 이어져 또 다른 접속문 구성을 이루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화자의 의향에 따라 서법 실현도 가능하고 선어말어미와 결합해 높임, 시제 등도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다.

그런데 ‘어미 + 하-’의 생략이 가능하다고 해서 이때의 ‘하다’를 대동사로 파악할 수는 없다. 만약 ‘하다’가 이어지지 않는다면 대등 접속절로 문장이 끝나거나, 다른 성격의 명제와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계속 일정한 명제가 이어질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던 청자의 입장에서 화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의미를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고 화자의 입장에서도 자신의 의도를 제대로 전달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서법이나 시제, 높임 등의 문법소를 실현하기에도 어려움이 크다.

그리고 ‘-고, -든지 + 하다’ 구문은 [±유정물] 주어를 모두 허용하며 ‘-고 하다’의 경우 동일 주어에서 자유로운데 ‘-든지 하다’의 경우는 주어에 ‘은/는’이 결합할 때는 동일 주어 제약이 있는 반면 ‘이/가’가 결합하게 되면 동일 주어 제약이 없다.

또 서술어의 동사 제약은 없으나 선후행절 서술어가 동일한 자질을 가져야 한다. 그리고 다른 시제 선어말어미와 결합에는 제약이 있으나 과거 시제 ‘-었-’과는 결합 제약이 없으며 후행문 서법 제약이 없으므로 평서, 의문, 명령, 청유가 모두 가능하다.

그런데 말뭉치 검색결과 ‘-든지’가 종결어미와 결합한 ‘-다든지’나 ‘-(이)라든지’는 ‘하다’와 결합할 때 구체적인 예를 열거하는 기능으로 쓰이는 경우가 대부분인 듯하다. 이런 용법의 경우 앞에 ‘예를 들어, 가령’ 등의 표현이

와도 의미상에 문제가 없다.

부정표현과의 결합 양상을 살펴보면 ‘-고 하다’의 경우 부정의 제약이 없다. 그런데 ‘-든지 하다’를 보면 뒤에 오는 ‘-든지 하-’가 생략된 경우는 부정표현과 결합이 불가능한 반면 ‘-든지 -든지 하다’의 형태로 쓰이면 평서나 의문의 경우는 여전히 그 쓰임이 불가능하나 명령이나 청유형이 와서 ‘말다’와 결합하는 경우나 의지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부정표현과도 결합이 가능하다.

### 3.2. ‘-게 하다’, ‘-도록 하다’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성

연결어미로 ‘-게’, ‘-도록’은 원하는 결과 혹은 목적을 나타낸다는 의미상의 공통점 외에 통사적 유사성과 상호 대치가능성 등으로 인해 대표적인 유사문법으로 꼽힌다. 이들은 ‘-게 하다’, ‘-도록 하다’로 쓰일 때도 사동의 의미 기능을 수행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런데 ‘-도록 하다’는 사동 외에 다른 기능도 한다는 점에서 차이도 있으므로 이 장에서는 이들 어미가 ‘하다’와 결합 시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을 가지는지 비교하여 살펴도록 하겠다.

우선 연결어미 ‘-게, -도록’은 선행절로는 후행절의 사태가 이루어짐으로써 생기는, 혹은 기대되는 결과가 제시되고 후행절에는 선행절 사태를 달성하기 위한 행위가 제시된다. 후행절을 세분화하자면 평서나 의문의 경우는 선행명제 발생을 위해 필요한 행위나 이미 수행된 행위를 설명·진술하고, 명령이나 청유의 경우는 선행절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행위를 요구하는 기능을 한다<sup>13)</sup>.

그런데 이들 어미가 ‘연결어미 + 하다’ 구성으로 쓰이게 되면 후행절과의 접촉 기능을 상실하고 ‘-게, -도록’의 의미에 초점이 주어진다. 이때는 화자의 목적이나 원하는 결과를 나타낸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나 연결어미로 쓰이는 경우는 후행절에 제시되는 그 결과의 달성을 위한 행위에 의미 초점이 놓이는 반면 ‘-게 하다’, ‘-도록 하다’는 후행하는 ‘하다’에 의해 그 목적이 실

13) 연결어미 ‘게’와 ‘-도록’에 대한 연구는 윤평현(1989) 참조.

현 혹은 달성되었음을 나타낸다. 이는 ‘하다’가 가진 능동성, 행위성의 의미가 화자의 의도나 목적을 이행, 혹은 완료한다는 의미로 추상화되어 주체의 바람과 의도의 의미가 더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이것이 타인을 대상으로 자신의 바람과 기대를 투영하는 의미로 발전하면서 사동의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sup>14)</sup>

그런데 ‘-게 하다’와 ‘-도록 하다’는 목적이나 원하는 결과의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도록 하다’는 다른 대상이나 타인은 물론 화자 자신도 목적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게 하다’는 다른 대상이나 타인을 대상으로 목적을 나타내는 데만 쓰일 수 있다. 그러므로 예 (6)에서 타인이나 다른 대상이 목적이나 의도의 대상이 되는 (6ㄷ, ㄱ)은 ‘-게’의 쓰임이 자연스러운 반면 화자 자신의 목적을 드러내는 (6ㄱ, ㄴ)은 ‘-게’의 쓰임이 어색하다.

- (6) ㄱ. 너랑 나랑 오랜만에 쌓인 스트레스나 \*풀게/풀도록 하자.  
 ㄴ. 네 속에 든 말이나 속 시원히 해 \*보게/보도록 해라.  
 ㄷ. 애들이 밖을 내다보게/내다보도록 했다.  
 ㄹ. 바람이 좀 더 들어오게/들어오도록 할까요?

또 ‘하다’가 ‘만들다’로 대체 가능한데 이를 통해 볼 때 ‘하다’는 ‘-게, -도록’이 이끄는 명제 내용의 완료와 달성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체의 능동적 행위나 노력에 의한 것임을 나타낸다.

‘하다’와 결합해 사동의 의미로 쓰일 때 다른 대상에 대한 주체의 기대 실현을 나타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대상이 존재해야 한다. 이때 접속문 후행절 주어는 선행절 주어로, 선행절 주어는 대상으로 대치되어 주체의 의도나 기대에 따라 일정 대상을 변화시키는 행위를 했다는 의미, 즉 사동의 기능을

14) ‘-게 되다’의 경우 ‘되다’가 완료된 결과, 혹은 비의도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대’나 ‘바람’ 등 주체의 능동적인 의미가 약화되어 일정한 결과 상태를 나타내는 의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보인다.

하게 된다. 그러므로 예 (7)에서 보이는 것처럼 ‘A가 B를/B가 ~게/도록 하다’는 가능한 반면, 대상이 생략된 ‘A가 ~게/도록 하다’는 성립이 불가능하다.

(7) ㄱ. 차가 지나가게/지나가도록 학생들은 벽쪽으로 붙어섰다.

ㄱ'. 학생들은 차가 지나가게/지나가도록 했다.

ㄱ". \* 학생들은 지나가게/지나가도록 했다.

ㄴ. 영화가 쉬게/쉬도록 철수가 자리를 준비했다.

ㄴ'. 철수는 영화를 쉬게/쉬도록 했다.

ㄴ". \* 철수는 쉬게/쉬도록 했다.

그리고 예 (8)에서 제시한 것처럼 대상 B는 목적격뿐만 아니라 ‘-도록’과 결합된 동사의 주격으로 실현될 수 있으므로 ‘A가 B를/에게 -도록 하다’로 실현되거나 ‘A가 B가 -도록 하다’로도 가능하다. 특히 ‘-도록’과 결합한 절이 목적어를 가진 경우는 목적어 중첩을 막기 위해 대상이 주격으로 실현되는 것이 자연스럽다.

(8) ㄱ. 엄마는 영화를/에게 혼자 학교에 가도록 했다

ㄱ'. 엄마는 영화가 혼자 학교에 가도록 했다.

ㄴ. ? 선생님은 철수를/에게 자주 친구들을 만나도록 했다.

ㄴ'. 선생님은 철수가 자주 친구들을 만나도록 했다.

어쨌든 ‘-게/도록 하다’가 사동의 기능을 할 때는 주체의 의도나 목적이 투영된 대상이 필요하고 ‘-도록’과 결합된 서술어는 대상의 행위가 된다. 이 때는 ‘-게/도록 하-’의 생략이 불가능하므로 생략 시 비문이 되거나 사동의 의미를 상실하기 때문에 다른 의미로 해석된다. 사동으로 쓰이는 ‘-게/도록 하다’는 시제에 제약이 없기 때문에 과거, 현재, 미래 모두 가능하며 사동이라는 의미 기능으로 인해 상태동사나 ‘이다’와 결합에 제약을 가진다. 그리고 서법에 있어서는 평서, 의문, 명령, 청유 모두 두루 쓰일 수 있다.

그런데 아래의 예 (9ㄱ~ㄴ)를 보면 ‘-게 하다’와는 달리 ‘-도록 하다’는 사동뿐만 아니라 다른 의미 기능으로도 쓰인다. (9ㄱ, ㄴ)은 사동의 용법으로 (9ㄷ, ㄹ)은 비사동의 용법으로 쓰인 예이다.

- (9) ㄱ. 너는 영화를 쉬도록 해라.  
 ㄴ. 저는 꼭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ㄷ. 너는 당장 그 사람을 해고하도록 해라.  
 ㄹ. 제가 다음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9ㄱ, ㄴ)는 사동의 예로 ‘너는 영화가 쉬도록 만들어라’, ‘저는 꼭 그 사람이 성공하도록 만들겠습니다’로 해석이 가능하며 ‘-도록’과 결합된 명제의 대상과 서술어는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이룬다. 즉 ‘영화가 쉬다’, ‘그 사람이 성공하다’가 성립한다. 반면 (9ㄷ, ㄹ)은 비사동적 용법의 예로 ‘너는 당장 그 사람이 해고하도록 만들어라’, ‘제가 다음 발표가 하도록 만들겠습니다’로 해석되지 않으며, ‘그 사람이 해고하다’나 ‘다음 발표가 하다’처럼 대상과 서술어가 주술관계를 이루지 못한다.

또 (10)에서처럼 사동의 경우 ‘하다’는 물론이고 ‘-도록 하-’의 생략도 불가능하며 ‘-게’와 대치가 가능하다. 그러나 비사동의 경우 ‘-게’와 대치는 불가능하고, ‘-도록 하-’의 생략은 가능하다. 그리고 높임의 제약만 없다면 명령문에서 ‘하다’가 생략될 수 있다.

- (10) ㄱ. 내일부터 지각하는 학생들이 없게/없도록 해 주십시오.  
 ㄱ'. 내일부터 지각하는 학생들이 \*없어 주십시오. / \*없도록 주십시오.  
 ㄴ. 토론과 질의응답의 시간을 갖도록/ \*갖게 하겠습니다.  
 ㄴ'. 토론과 질의 응답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ㄷ.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해라/살펴봐라/살펴보도록.

그리고 비사동으로 쓰이는 ‘-도록 하-’는 1인칭의 경우 화자의 의지나 계획, 약속 등을 나타내거나 상대에게 동의를 구하는 구문에 결합한다. 그리고

의문으로 실현될 때는 진위 여부나 설명을 요구하는 일반적인 의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반면 1인칭의 의지나 계획 표현과 결합하여 쓰일 때는 상대방에게 자신의 행위에 허락이나 동조를 구하는 경우에 국한되어 쓰인다. 그러므로 종결어미로 ‘-을까요?’나 ‘-어도 되겠습니까?’ 등만 결합이 가능하다.

- (11) ㄱ.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각종 규제를 대폭 없애도록 하겠다. / 없애겠다.  
 ㄴ. 마음이 공허와는 전혀 다른 것인지의 여부를 찾아내도록 해야/찾아내야 합니다.  
 ㄷ. 제가 발표하도록 할까요? / 해도 되겠습니까?  
 ㄹ. 제가 발표하도록 \*해요? / \*합니까? / \*하나요? / \*하니?

그리고 (12)의 예문을 통해 비교해 볼 때 명령문이나 청유문의 경우 보다 공손하게 혹은 공식적으로 나타내는 기능을 한다.

- (12) ㄱ. 전화 꼭 하고, 요번주엔 집에 내려오도록 해/내려와 보렴.  
 ㄴ. 저한테 믿어주지 않으려면, 마을 어촌계 사업으로도 하도록 합시다/합시다.

이때의 ‘-도록 하다’는 시제제약이 있기 때문에 평서문의 경우 과거나 현재로 쓰일 수 없고 항상 미래시제로만 쓰인다. 특히 화자의 의지와 관련된 다짐이나 약속, 계획 등에 쓰이기 때문에 (13ㄱ~ㄴ)에서처럼 ‘-겠-’이나 ‘-을 것이다’, ‘-지요’, ‘-을게요’와 결합이 자연스럽다. 이는 연결어미 ‘-도록’이 주체의 주관적 지향점을 나타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 (13) ㄱ. 제가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ㄴ. 기본적인 사항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지요.  
 ㄷ. 우리는 먼저 출발하도록 할게요.  
 ㄹ.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용법이 평서로 쓰일 때 화자의 계획이나 의지를 나타내기 때문에 ‘내가/우리가 ~도록 하겠다/할 것이다’의 형태로 주로 나타나는데 간혹 제3자를 주어로 취하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이 또한 3인칭의 의지나 계획이 아니라 1인칭의 입장에서 서술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예를 들어 ‘그건 김 부장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의 경우 김 부장은 화자쪽이나 화자와 동일한 범주에 속한다는 전제가 있어야 하며, 김 부장의 결정이나 계획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화자가 속해 있는 집단의 결정이나 약속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우리 김 부장, 저희쪽 김 부장’ 등으로 나타내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리고 사동의 기능을 하지 않으므로 ‘-게’와의 대치는 불가능하며, 의지나 계획과 의미가 상충되기 때문에 상대동사와의 결합에도 제약을 보인다.

### 3.3. ‘-으려고 하다’, ‘-으면 하다’ 구성의 통사·의미적 특성

‘-으려고’나 ‘-으면’은 연결어미로 쓰일 때 화자의 주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다<sup>15)</sup>. 이에 ‘하다’가 결합한 구성은 보다 주관적이고 양태적인 의미로 확대되어 ‘-으려고 하다’는 주체의 의도나 계획을, ‘-았으면 하다’는 주체의 바람이나 희망을 나타낸다.

기존 연구들을 보면 ‘-으려고’가 의도나 목적 외에 조짐이나 예상의 의미 기능을 한다는 결과를 제시한 것들이 많다. 그러나 목지선(2013)에서는 선행절의 의미관계나 생략현상 등을 근거로 하여 ‘-으려고’가 연결어미로 쓰일 때는 의도나 목적의 의미 기능만을 하며, 조짐이나 예상 등은 ‘-으려고 하다’가 나타내는 의미 기능임을 밝혔다. 즉 ‘-으려고’는 의도나 목적을 나타내는 기능만 하고, ‘-으려고 하다’는 주어가 [+유정물]인 경우는 목적이나 의도, 예정이나 조짐의 의미로 다 쓰일 수 있지만 [-유정물] 주어일 때는 주어의 특성상 목적이나 의도의 의미는 나타내지 못하고 예정이나 조짐의 의미로만 쓰일 수 있다.<sup>16)</sup> ‘-으려고’의 쓰임을 주어의 특성 및 후행 요소에 따라 나누

15) 이에 대한 진술은 목지선(2018)에 나타나있다.

16) ‘-으려고 하다’의 통사·의미적 특징은 목지선(2013)에서 논의했는데 표면적으로

어 보면 다음 (14)와 같다.

- (14) ㄱ. [+유정물] 주어 -으려고 (의도/목적 + 수반 행위)
- ㄴ. [-유정물] 주어 -으려고(예상이나 조짐(‘하다’의 생략형) + 판단 근거)
- ㄷ. [+유정물] 주어 -으려고 하다(의도/계획. 예상/조짐)
- ㄹ. [-유정물] 주어 -으려고 하다 (예상/조짐)

‘-으려고’의 유형을 용례로 제시하면 다음 (15)의 예와 같다

- (15) ㄱ. 너희의 노고와 희생의 대가를 지금 한꺼번에 보상받으려고 성급하게 덤비는 것은 잘못이야
- ㄴ. 더 괴롭고 기침만 나오려고 (하면서) 가슴이 죄어들었다
- ㄷ. 왁스를 묻혀 막 목발 손잡이 부분을 닦으려고 할 때였다.
- ㄷ'. 현우는 하늘이 노래지면서 뒤로 나동그라지려고 했다.
- ㄹ. 무력감이 밀려오면서 눈이 스르르 감기려고 했다.

이처럼 의도나 목적의 의미 기능을 하던 ‘-으려고’에 ‘하다’가 결합함으로써 조짐이나 예상의 의미로까지 확장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의미변화에 ‘하다’가 일정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데, 유정물 주어와 결합하여 주어의 의도나 목적을 선행절로, 그 의도나 목적 달성을 위한 행위를 후행절로 제시 하던 연결어미 ‘-으려고’가 ‘하다’와 결합함으로써 그 의미가 확장되어 주어의 신체변화나 주어에게 발생할 일을 예견하는 의미까지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유정물 주어에 ‘-으려고 하다’가 결합한 예문들 중에 화자의 의도나 목적으로도, 어떤 일이 시도되거나 일어날 것을 예상하는 찰나의 의미로도 해석되는 예들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예 (16ㄱ~ㄹ)은 유정물 주어와 결합한 ‘-으려고 하다’가 주어의 계획이나 결심을 나타내는 ‘-으려고 마음먹-’의 의미로도, 그 행위를 하려는 조짐을 보이는 순간을 나타

---

‘-으려고’로 실현되어 조짐이나 예상을 나타낼 때는 ‘하- + 원인/이유의 연결어미’가 생략된 것으로 보았다.

나는 ‘-으려는 때에’의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함을 보인다.

- (16) ㄱ. 내가 마약 큰길에서 골목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별안간 등 뒤에서 누가 불렀다  
ㄴ. 식사를 마치려고 하는데 남동생인 우창이가 들어온다.  
ㄷ.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했는데 책자 뒤에 써어 있는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ㄹ. 그자가 벌떡 일어나면서 싸우려고 하자 태봉이가 허죽허죽 웃으면서 놀려댄다.

그리고 [-유정물] 주어와 결합하는 경우는 의도나 계획 등을 나타낼 수는 없으므로 주로 사물이나 상태 변화에 대한 예상이나 조짐을 드러낸다.

‘-으려고 하다’의 생략현상을 살펴보면 다소 특이하다. ‘-든지 하다’, ‘-고 하다’, ‘-도록 하다’는 어미 전체에 ‘하’가 결합한 구성이 모두 생략되는 반면 ‘-으려고 하다’는 어미의 일부인 ‘-고’와 ‘하’가 결합한 ‘-고 하’가 생략되거나 ‘하다’만 생략된다. 그리고 이러한 생략현상은 그 의미 기능에 따라 달리 나타나는데 어미 ‘-네, -는구나, -는지, -니까, -는데, -거든, -면, -고, -기에’<sup>17)</sup> 등과 결합할 때는 ‘-고 하’의 생략이 가능하나 어미 ‘-어요, -지, -어도, -어야, -며, -으나, -어서, -자’나 선어말어미 ‘-았/었-’ 등과 결합할 때는 생략이 불가능하다.

- (17) ㄱ. 밥을 안치고 남을 물을 버리려(고 하)ㄴ다/네/는구나/는지/니까/는데/거든/면/고/기에...  
ㄴ. \* 밥을 안치고 남을 물을 버리려(고 하)-어요/지/며/으나/어서/자...

‘하다’의 생략 가능성에 대해 살펴보면, ‘-으려고’가 종결어미로 쓰여 의도·목적 등을 드러낼 때는 ‘하다’를 결합하면 자연스러우나 연결어미 ‘-으려고’ 뒤

---

17) ‘-비니다/비니까’는 1인칭 주어와 결합할 때 생략 가능하다.

에 ‘하다’를 삽입하면 매우 어색해진다.

(18) ㄱ. 내일쯤에는 슬슬 출발을 하려고. (해)

ㄴ. 말짱하게 생겨갓고 생으로 남의 돈을 먹으려고.(하는구먼)

ㄷ. 어차피 A이사가 자네 사표를 받으려고 (\*하면서/\*하고..) 그곳에 보낸 거 아니겠어?

ㄹ. 오빠 오면 함께 먹으려고 (\*하면서/\*하고..) 놔뒀지만, 아무래도 먹어야 할 것 같다

그러므로 이때의 ‘하다’는 후행절을 대신하는 대동사가 아니다. ‘-으려고’에 후행하는 절은 선행절에서 제시된 의도나 목적 달성을 위해 수행한 행위를 나타내는 반면, ‘하다’는 동작성이 없다.

다음으로 ‘-으면 + 하다’ 구성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으면’ 뒤에 고정된 어휘형식이 결합해 ‘-있으면 좋겠다’나 ‘-있으면 하다’로 쓰이면 화자의 바람이나 희망을 나타낸다. 물론 ‘-으면 하다’도 이러한 의미를 드러내나 ‘-있으면 하다’에 비해 빈도가 낮고 부자연스러운 경우가 있으므로 희망이나 바람을 나타내는 대표 형태는 ‘-있으면 하다’로 잡아 논의를 할 것이다.

문숙영(2009: 249)에서는 ‘-있-’이 가정이나 양보, 당위의 어말어미와 결합할 때 비현실의 양태적 의미를 지시한다고 보고 ‘-으면 좋겠다’와 ‘-있으면 좋겠다’의 차이 역시 같은 맥락으로 설명된다고 보았다. 그리고 ‘-으면’에 ‘-있-’이 결합함으로써 화자가 바라는 상황의 실현 가능성이 적어지므로 상대방에게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힘이 줄어들어 더욱 공손한 표현이 된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두 형태의 공손성 정도에 차이가 있음을 판별하기가 어렵고, 바람의 의미를 드러내려고 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낮게 하는 표현과 결합시킨다는 설명 역시 설득력을 가지기 힘들다고 본다. 오히려 ‘-있-’을 완료로 보고 바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간절함을 전달하기 위해, 상황을 완료 상태로 나타내는 ‘-있-’이 삽입된 것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연결어미로 쓰여 과거사실과 반대되는 가정이나 완료 상태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었으면 + 후행절’과는 달리 ‘-었으면 하다’는 미래의 바람이나 소망을 나타낸다. 그러므로 결합하는 명제의 성격도 다른데 연결어미 ‘-었으면’에 결합하는 명제는 과거나 완료된 상태라면, ‘-었으면 하다’와 결합하는 명제는 미래를 나타낸다. 그러므로 (19)에서처럼 ‘-었으면’이 연결어미로 쓰인 경우는 선행절에 미래시제가 쓰일 수 없는 데 반해 ‘-었으면 하다’는 미래를 나타내는 수식어(구)가 쓰일 수 있다. 이 또한 ‘-었으면’은 과거 사실을, ‘-었으면 하다’는 미래 사실을 나타낸다는 근거가 된다.

- (19) ㄱ. 철우가 {\*내일이라도, \*다음 주말에, \*나중에} 도착했으면 전화가 올 거야  
 ㄱ'. 철우가 {내일이라도, 다음 주말에, 나중에} 도착했으면 좋겠어  
 ㄴ. 내가 보낸 메시지를 {\*내일이라도, \*다음 주말에, \*나중에} 봤으면 아까 출발했을 거야.  
 ㄴ'. 내가 보낸 메시지를 {내일이라도, 다음 주말에, 나중에} 봤으면 좋겠다.

‘-었으면 하다’가 바람이나 희망의 의미 기능을 한다는 것은 아래의 예처럼 ‘-었으면 하다’가 수식하는 명사가 주로 ‘바람’이나 ‘희망’, ‘소망’, ‘마음’ 등이라는 점에서도 드러난다.

- (20) ㄱ. 커피와 담배를 끊으면서 생활의 변화를 스스로 불러들였던 것은 교사직을 그만두었으면 하는 소망이 있어서였다.  
 ㄴ. 음악도 이처럼 강하고 신나게 달려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새벽바다의 태양처럼 쭉 올라온다.  
 ㄷ.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내가 ‘여전히 대통령이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는 바람에 문제거리를 갖는 일은 없다.

그런데 ‘-었으면 하다’가 바람을 나타내는 ‘-었으면 좋겠다’와 대치 가능하

다는 점을 들어 ‘하다’를 ‘좋겠다’의 대동사로 보기도 하는데 이들의 통사·의미·화용상 특징이 동일하지 않으므로 대동사로 보기는 어렵다. ‘-었으면 좋겠다’는 상대의 반응과 대답을 염두에 둔 담화에서뿐 아니라 자신의 감정표출에 초점을 둔 독백에도 쓰일 수 있으나 ‘-었으면 하다’는 (21ㄱ, ㄴ)처럼 독백체에서는 어색하고 상대방과 대화를 나누는 상황에서만 쓰일 수 있다.

(21) ㄱ. (마른 하늘을 바라보면서 혼자 중얼거리며) 비라도 내렸으면 좋겠다 / \* 비라도 내렸으면 한다.

ㄴ. (나쁜 소식을 전하는 전화를 끊고 혼잣말로) 제발 이게 꿈이었으면 좋겠어. / \* 제발 이게 꿈이었으면 해.

그러므로 ‘-었으면 하다’는 ‘-었으면’의 주체로 유정물뿐만 아니라 무정물도 가능하며 바람의 주체도 1인칭부터 3인칭까지 모두 쓰일 수 있다. 이는 화자뿐만 아니라 타인의 바람까지 모두 나타낼 수가 있음을 의미한다. 반면 ‘-었으면 좋겠다’는 ‘-었으면’ 주체의 유정물 여부에 제약은 없으나 바람의 주체로 3인칭이 올 수 없기 때문에 주체의 바람을 제시하거나 상대방의 바람을 묻는 것은 가능하나 제3자의 바람을 제시하는 기능은 할 수 없다.

그리고 ‘-었으면 하다’는 ‘-었으면’에는 부정이 제약 없이 결합할 수 있으나 ‘-었으면’과 ‘하다’ 사이에는 어떤 부정 표현도 올 수 없다. 이는 ‘-었으면’이 연결어미로 쓰일 때와는 다른 특성이다. 그러나 ‘-었으면 하다’ 뒤에 긴 부정은 허용되는데 이때는 ‘-었으면 하다’ 전체를 부정한다. ‘-었으면 좋겠다’와 ‘-었으면 하다’는 두 성분 사이에 다른 성분 개입 여부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었으면’과 ‘좋겠다’ 사이에 정도 부사의 개입은 가능하나 ‘-었으면 하다’의 경우 어떤 성분도 개입이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으려고’나 ‘-으면’ 뒤에 결합한 ‘하다’는 일반 동사인 ‘생각하다, 계획하다’나 상태동사인 ‘좋겠다, 행복하겠다’ 등과도 대치가 가능하나 이들이 생략되어도 여전히 의도나 계획, 바람이나 희망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대동사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대치 가능 동사가 구체적 행위를 나

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고나 판단, 혹은 긍정적 인식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며,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보아 ‘하다’는 문법적 기능이나 의미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여겨진다.

## 4. 결론

종결어미화 된 연결어미들의 특성 중 대표적인 것이 어휘적 의미가 없는 ‘하다’와 결합하여 ‘연결어미 + 하다’ 구성으로도 활발한 쓰임을 보인다는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점에 관심을 가지고 ‘연결어미 + 하다’ 구성이 어떤 통사적, 의미적 특성을 가지는지 살펴보았다. 그리고 그러한 고찰 과정 속에서 ‘연결어미 + 하다’ 구성이 연결어미와 어떤 관련성이 있으며, 뒤에 후행절과 결합하는 용례와 비교했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제시하였다.

동일 형태의 어미가 연결어미로 쓰이는가 하면 어휘적 의미가 없는 ‘하다’와 결합하여 ‘어미 + 하다’ 구성을 이루기도 하고, 종결어미로도 활발하게 쓰인다는 점은 연결어미의 종결어미화 현상을 연구함에서 ‘연결어미 + 하다’ 구성의 특징을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연결어미가 종결어미화 과정에 있어 연결어미가 ‘연결어미 + 하다’ 구성으로 쓰이다가 종결어미로 점진적 변화를 거친 것인지, 아니면 연결어미가 ‘연결어미 + 하다’ 구성과 종결어미 각각으로 기능 변화를 겪었는지를 살피는 데도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연결어미, 종결어미, ‘어미 + 하다’ 구성으로 두루 쓰이는 어미 ‘-고, -든지, -게, -도록, -으려고, -으면’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이들이 ‘어미 + 하다’ 구성으로 쓰일 때의 특성을 고찰했다. 이들 어미를 ‘하다’의 기능에 따라 ‘-고/-든지 하다’ 구성, ‘-게/-도록 하다’ 구성, ‘-으려고/-으면 하다’ 구성 등 크게 셋으로 나누어 그 특성을 살폈다.

‘-고 하다, -든지 하다’의 경우는 ‘-고’나 ‘-든지’ 뒤에 ‘하다’를 결합하게 되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명제의 나열을 중지하는 동시에 나열될 수 있는

명제가 더 있음을 함의하므로 의미적인 면뿐만 아니라 언어의 경제적인 측면도 충족시키는 기능을 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명령이나 청유, 혹은 계획이나 약속 등을 나타내는 경우, 하나의 명제만 제시하면 강요나 강압의 느낌이 들거나 부담이 가중될 수 있는데 이렇게 ‘-고 하다, -든지 하다’ 구성을 사용함으로써 청자나 화자 자신의 부담을 덜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보다 부드럽게 원하는 바를 제시, 혹은 수용할 수 있게 하는 기능을 했다. 그리고 이러한 기능이 확대되어 강조나 단정적 표현의 회피라는 화용적 기능을 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게 하다, -도록 하다’의 경우는 ‘-게, -도록’에 후행하는 ‘하다’에 의해 그 목적이 실현 혹은 달성되었음을 나타내는데 이는 ‘하다’가 가진 능동성, 혹은 행위성의 의미가 화자의 의도나 목적을 이행, 혹은 완료한다는 의미로 추상화되어 주체의 바람과 의도의 의미가 더 강화된 것으로 보였다. 그리고 이러한 의미가 다른 사람을 대상으로 자신의 바람과 기대를 투영하는 의미로 발전하면서 사동의 의미를 갖게 된 것으로 파악했다.

마지막으로 ‘-으려고 하다, -으면 하다’의 경우를 보면 연결어미의 의미에서 보다 주관적이고 양태적인 의미로 확대되어 ‘-으려고 하다’는 주체의 의도나 계획을, ‘-으면 하다’는 주체의 바람이나 희망을 나타낸다. 이들 어미 뒤에 결합한 ‘하다’는 어휘적 의미를 가진 ‘생각하다, 계획하다’나 ‘좋겠다, 행복하겠다’ 등과도 대치가 가능하다고 볼 수도 있겠으나 이들이 생략되어도 여전히 의도나 계획, 바람이나 희망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대동사로 보기는 어렵다. 그리고 대치가 가능하다고 할 수 있는 이들 동사가 구체적 행위나 행동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사고나 긍정적 인식이라는 다소 추상적인 의미를 가지며, 생략이 가능하다는 점 등으로 보아 ‘하다’는 문법적 기능이나 의미적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기도 힘들다고 여겨진다.

## 참 고 문 헌

- 구현정(1989) 「현대국어의 조건될 연구」, 건국대 박사논문,  
구현정·이성하(2001) 「조건표지에서 문장 종결표지로의 문법화」, 『담화와  
인지』 8, 담화인지언어학회, 1-19면
- 권재일(1983) 「현대 국어의 접속문 어미 연구」, 『언어학』 6, 한국언어학회,  
3-21면  
(1988) 「국어의 내포문」, 『국어생활』 12, 국어연구소, 73-85면
- 김성덕(2005) 「‘하다’에 대한 인지의미론적 연구」, 한국외국어대 석사논문
- 김수정(2002) 「한국어 문법 교육을 위한 연결어미 연구」, 서울대 박사 논문
- 김승곤(1979), 「선택형어미 ‘-거나’와 ‘-든지’의 화용론」, 『말』 4, 연세대 한국  
어학당, 9-27면  
(1980) 「가정형어미 ‘-면’과 ‘-거든’에 대하여」, 『인문과학논총』 12, 건  
국대인문과학 연구소, 27-42면
- 김영희(1984) 「‘하다’ 그 대동사 설의 허실」, 『배달말』 9, 배달말학회, 31-63면
- 김제열(1999) 「‘하다’ 구문의 연구」, 경희대학교 박사 학위논문,  
김종록(1984) 「접속어미 {-러, -려(고), -고자, -도록}에 관한 연구」, 경북대  
석사 논문
- 김진수(1987) 「국어 접속문 연구」, 충남대 박사학위 논문
- 김창섭(2002) 「경동사 ‘하다’의 두 가지 보어: ‘하다’ 어근구와 ‘하다’명사구」,  
『관악어문연구』 27, 149-186
- 김태엽(1998) 「국어 비종결어미의 종결어미화에 대하여」, 『언어학』 22, 한국  
언어학회, 171-189면  
(2002) 「국어 종결어미화의 문법화 양상」, 『어문연구』 33, 어문연구학회,  
47-68면
- 김형배(1990) 「현대국어의 선택 어미 연구」, 건국대 석사 논문
- 목지선(2012) 「계기의 접속어미 ‘-고’와 ‘-아서’의 의미·통사상의 차이 - 부정  
표현과 결합 양상을 중심으로」, 『어문학』, 116, 한국어문학회, 51-80면

- (2013) 「어미 ‘-으려고’의 통사·의미적 특징에 대하여」, 『어문학』 122, 한국어문학회, 41-67면
- (2015) 「국어 입말의 비격식체 종결어미 연구」, 경상대학교 박사 논문,
- (2018) 「국어 범용어미에 대한 연구」, 『우리어문연구』 61, 우리어문학회, 355-390면
- 문숙영(2009) 「시제의 의미 및 사용과 관련된 몇 문제」, 『한국어학』 43, 한국어학회, 1-27면
- 박재연(1998) 「현대국어 반말체 종결어미 연구」, 서울대 석사 논문
- (1999) 「국어 양태 범주의 확립과 어미의 의미 기술」, 『국어학』 34, 국어학회, 199-225면
- 서정수(1975) 「동사 “하-”에 관한 연구」서울대 박사학위논문
- 유현경(1996) 「국어 접속문의 통사적 특질에 대하여」, 『한글』 191, 한글학회, 77-104면
- (2003) 「연결어미의 종결어미적 쓰임에 대하여」, 『한글』 261, 한글학회, 123-148면
- 유혜원(2012) 「‘하다’와 동일한 논항을 갖는 ‘시키다」, 『우리어문연구』 42, 우리어문학회, 121-147면
- 윤평현(1989) 「국어 접속어미에 대한 연구-의미론적 기능을 중심으로」, 전남대 박사 논문
- 이은경(1990) 「구어체 텍스트에서의 한국어 연결어미의 기능」 『국어학』 34, 167-198면
- 장경희(1986) 『현대 국어의 양태범주 연구』, 탐출판사
- 전혜영(1988) 「현대 한국어 접속어미에 대한 화용론적 연구」. 이화여자대 박사학위논문
- 최용환(1998) 「서술어의 확장적 배합」, 『어문학』 62, 한국어문학회, 101-123면
- 최재희(1985) 「국어 의존동사 구문의 통사론-’싶다, 보다, 하다’를 중심으로-」, 『한글』 232, 한글학회, 183-210면
- 한명주(2014) 「연결어미+하다 구성의 문법적 특징」, 『언어와 정보사회』 21, 서강대학교 언어정보연구소, 189-224면

【Abstracts】

A Study on Syntactic and Semantic Characteristics  
of ‘Connective Ending + Hada’ Structure.

Mok, Jiseon

This study examined whether the phonological information of visually presented words. One of characteristics of connective endings functioning as final endings is that they are actively used in ‘connective ending+hada’ structure. This study focused on the endings that are used as connective ending, final ending and ‘connective ending+hada’ and examined their characteristics when used in ‘connective ending+hada’ structure. Having ‘hada’, which lost the lexical meaning, after the connective ending signifies that this connective ending does not form a relational meaning between preceding and following clauses. Therefore, ‘hada’ in case has a grammatical function. In addition, even in the identical form, its meaning and function varies based on the ending that precedes ‘hada’. ‘hada’ is closely related to the meaning of preceding ending, and function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receding ending, and such difference is related to the syntactic characteristics as well.

**Key Words** : Connective endings, Final Endings, ‘Connective ending + hada’, connective endings functioning as final endings, model meaning,

이 논문은 2019년 06월 2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9년 07월 14일에  
심사 완료되어 2019년 07월 16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